

## 教育投資의 우선순위



國民大 總長 李 葵 錫

최근의 걸프戰爭은 尖端 테크놀로지의 가공할 위력과 함께 自國의 경제적 利益을 추구하는 국제적 生存競爭의 냉엄한 현실을 실감케 해주었다. 동·서 和解로 정치적 이념 대결의 시대가 막을 내림에 따라 세계는 지금 資源과 技術情報를 중심으로 한 經濟的 國家主義時代로 숨가쁘게 치닫고 있다. 부존 資源이 부족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知識과 技術情報의 개발 및 보급에 더욱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연구·보급함으로써 국가의 장래를 책임져야 할 大學의 現實은 그다지 밝은 편이 못된다. 최근 몇 년 간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온 일부 大學 및 그 관계자들의 입시 관련 不正과 非理는 大學教育 전반에 대한 社會의 不信을 초래하여 大學의 道德的 位相을 크게 손상시켰다. 각 大學에서 다반사가 되어 버린 학생 시위도 심각한 문제이다. 학생들은 정치적 주장은 말할 것도 없고 특정 교수의 퇴진, 총장 선출 및 학사 행정 참여, 등록금 동결 등 갖가지 명분으로 시위와 농성을 일삼으며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학교 행정을 마비시키는 일을 예사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教授와 學生 간의 不信을 깊게 할 뿐만 아니라 大學의 教育力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

大學이 본연의 社會的 義務를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추된 道德性和 權威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大學 구성원 각자가 치열한 自己反省과 거듭 태어나는 각오로 불신과 나태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道德的 氣風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研究 및 教育의 與件을 확충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수한 교수 요원의 충원, 각종 실험 기자재 및 시설의 확충 없이는 教育力의 向上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研究 및 教育 與件의 改善에 관한 한 우리 大學, 특히 大學生 人口의 75%를 수용하고 있는 私立 대학들은 그 전망이 결코 밝은 편이 못된다. 사학 재단의 대부분이 收益性이 빈약한 데다가 大學에 대한 일반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制度的 裝置도 미흡하기 때문에 私學의 財政은 학생의 등록금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은 재단과 학교 또는 학생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大學教育의 質的 向上을 위한 劃期的인 投資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大學 관계자들은 政府의 支援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政府의 教育豫算은 전체 예산의 20%를 상회하는 막대한 규모이지만, 유치원부터 大學에 이르기까지 각급 교육 기관에 나누다 보면 현상 유지에도 급급한 형편이어서 大學에 대한 劃期的 投資를 기대하기 어렵다. 각 大學이 寄附金 入學制度와 같은 재정 확충 방안을 거듭 거론하는 것은 私學이 처한 財政的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이다. 그러므로 정부나 국민들은 大學의 苦悶을 애정과 관심으로써 이해하고 大學財政의 擴充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尖端技術 開發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고 尖端工學 분야의 學生 定員을 늘리기로 한 것은 산업 기술 개발의 필요성에 비추어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러한 조치가 大學의 運營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아직 이른 감은 있지만, 첨단 분야의 학생 정원을 늘린다는 것 자체는 일단 大學 投資의 增大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教育投資의 均衡 내지 優先順位의 문제이다. 정부의 재원은 무한한 것이 아니므로 尖端工學 분야에 대한 투자 증대가 他分野 教育에 대한 投資의 減少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흔히 教育은 百年之大計라고 한다. 이 말은 교육 계획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또한 可視的인 成果에만 집착하는 愚를 범하지 말라는 경고의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첨단 테크놀로지의 개발과 보급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고 또 그 필요성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教育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價値의 일부분일 뿐이다. 教育은 테크놀로지를 구사할 人間의 人格을 형성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테크놀로지 開發보다 훨씬 중요한데도 투입한 노력의 효과가 即刻的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投資가 疎忽하기 쉽다. 지난 1988년 국민학교 교과서를 개정할 때, 연 560만 명의 국민학생이 읽어야 할 도덕 교과서의 冊當 研究·開發 비용이 노량진 대교 설계 비용의 1/40, 거부집 비용의 1/400 밖에 되지 않았다는 어느 교육학자의 푸념어린 지적(한국교육학회뉴스레터, 24-3, 1988.5)은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의 인격과 도덕성을 바르게 키우는 일을 혹시 소홀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이렇게 볼 때, 인격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는 유치원과 국민학교의 教育與件 改善과 교사들의 資質 向上에 보다 과감한 투자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漫然하는 아노미 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물론 한정된 財源으로 두 가지 일을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 필요성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의 개발에 대해서는 開發利益의 직접적인 수혜자일 수 있는 기업들이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大學이나 研究所에 지원하도록 制度化하고, 국가 예산은 자라나는 세대의 건전한 人格과 道德性을 함양할 보다 장기적인 계획에 더욱 집중적으로 投資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